



우리나라 최장수 상품(상표)등록증

국내 최장수 브랜드 '부채표 활명수'.

국내 최장수 브랜드 '부채표 활명수'는 지난 1910년 12월 16일 등록,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등록 상품이다.

동화약품은 이와 관련해 지난 1996년 한국기네스협회에게서 국내 최고의 제조회사 및 제약회사 등 4개 부문에 걸쳐 기록을 인정하는 인증서를 받은 바 있다.

활명수의 탄생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황제로 즉위한 189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 또는 경호실 요원에 해당하는 궁중 선전관이던 노천(老川) 민 병호는 궁에서 쓰이던 생약 비방에 양약의 장점을 결합, 다리지 않고 복용할 수 있는 혼합처방을 고안했는데 이것이 활명수의 시초다. 그해 9월 25일은 활명수가 처음으로 상품화된 날로 동화약품은 이날을 회사 창립기념일로 정했다.

오래된 역사만큼이나 에피소드도 많다. 일제시대에는 활명수가 독립자금의 원천으로 쓰였다. 초대 사장인 민 강 선생은 1919년 회사에 상해 임시정부의 비밀 연락처인 연통부를 설치하고 각종 정보와 함께 활명수를 판매한 금액으로 독립자금을 조성해 임시정부에 전달했다.

소주 업계 경쟁이 치열하던 1960년대 유명 소주 회사 영업팀이 판촉 활동 차원에서 술집을 돌아다니며 소주에 활명수를 탄 '활명수 칵테일'의 제조 시범을 보여 당시 주당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발명특허 기네스’는 독자여러분의 기고 및 자료제공에 따라 언제든지 바로 잡아 실을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편집자 주)

자료제공 :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 소장, 영동대학교 발명특허공무원학과 교수